

영국과 프랑스의 같은 기능 다른 목적의 자막 안경

글_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스마트 안경으로 공연의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Theatre in Paris and Atos사에서 첫선을 보였던 자막 안경 모델

영화는 자막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국경을 넘어 다니고 산업화되어 있으나 텍스트 배경인 무대 공연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매체를 찾지 못해 분명 한계가 있어왔다. 따라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공연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선보이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세계 공통의 관심사였는데, 그래서인지 해외 축제나 공연시장에 소개되어 흥행을 경험했던 우리 공연들도 텍스트 배경의 연극이기 보단 난타, 점프, 비보잉 등등 난버벌 일색이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4일 처음으로 프랑스 아비뇽 공연 축제에서 선보인 이 안경은 연극에 사용되는 자막 서비스를 하이테크로 지원하는 장치로 큰 기대를 모았다. 증강현실(augmented-reality)을 이용하고 있는 이 장치는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보여준다는데, 착용하는 관객의 선호에 따라 자막의 높이나 방향, 색깔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프랑스어 공연의 영어자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이 자막 안경 개발업체에 따르면 빠르면 몇 년 내에 런던극장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필자는 당시 이 안경을 개발했던 업체의 세일즈 팀을 만나 안경을 직접 착용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다소 무거워 장시간 착용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투명하지만 작은 모듈을 작동하면 눈앞에 떠다니는 자막을 형상화 할 수 있었으며 착용자에 한해 볼 수 있었

다. 지난번 데뷔한 이 안경으로는 <리어왕>의 프랑스어 공연을 영어, 중국어, 불어 자막지원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앞으로 세계 유수의 작품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작품을 프로모팅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앞으로 수 년 내 상용화 해 구매 후 착용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각종 예술단체나 극장에 판매할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공연시장의 메카인 런던과 뉴욕에 선보여 세계 관광객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펼친다”고... 하지만 “바로 상용화하기엔 아직은 비용과 기술적 장벽이 있는데, 제작사가 직접 업계의 ‘얼리어답터’로서 기술을 점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제품이 곧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비뇽 대학 축제선 축제를 통해 사용되는 제품의 경험과 관객들의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데이터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축제가 끝난 후 번복했다.

앞서 일본에서도 유사한 안경의 개발이 있었고 생각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영어 오페라를 즐길 수 있었다는 뉴스자료들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어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의 차이를 구별 짓는 역할을 해왔던 텍스트 배경의 공연에도 이젠 관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음에 업계는 반기고 있었다고 기억된다. 과연 런던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이나 방대한 대사를 가진 연극공연을 이제 우리말로도 접할 수 있는 날이 아토스(Atos)사의 말처럼 곧 다가오는 걸까?

공연장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하이테크 안경

위 발표가 있는 이후 후속 기사가 없었고 상용화엔 실패했다.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두고 이번엔 런던의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에서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역시 하이테크 안경인데 이번엔 외국어라

는 이유로 발생하는 언어장벽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 청각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탄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제공: 국립극장(NT)

지난주 국립극장이 가을시즌 언론 홍보를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실제 관객의 반응을 알아보려 객석에 도입이 되는 새로운 자막 안경을 선보인 것인데, 기존의 캡션(Caption-현재 대사 뿐 아니라 무대 지시, 음향 효과까지 모두 문자로 처리해 객석 2층 양 옆에 지원되는 자막 서비스)과 병행되는 부가 서비스로 공연 역사를 바꿀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존 캡션서비스는 전체 공연일정 중 극히 제한된 회차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배우의 움직임을 쫓다보면 피할 수 없이 자막을 놓치게 되고 자막에 시선을 옮기면 배우의 움직임을 볼 수 없어 오히려 관객에 도움이 아닌 방해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준비되어온 이 제품은 내년 이맘때 테스트가 모두 끝이 나는데 그 시점부터는 국립극장의 모든 공연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술감독이 밝히고 있다.

“기술발전을 통해 이들이 단지 1분만이라도 공연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관객개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국의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적 측면에서도 환상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극장 예술감독 Rufus Norris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으로, 세금을 지원금으로 받아 공연을 제작하는 극단이나 이와 상관없이 상업적 논리로 제작되는 공

연 작품이 최초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공연계의 제작방식은 영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비난받아왔다. 그리고 이미 작년 11월호에 이런 내용을 평소 장애를 가졌으나 있으며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장에 가보면 막상 극장이 나의 장애를 상기시켜 불편하게 한다는 취지로 “극장에 가면 비로소 내가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You’re not disabled; theatre disables you)”라는 제목과 함께 기고를 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영국은 선천적 또는 고령으로 인해 장애의 약 20%가 청력에 집중되어있는데 국립극장에 따르면 이러한 계층이 약 20년 내 1,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각해보면 2년의 기술 격차는 놀라워 보인다. 아비뇽 축제에서 선보였던 것은 10개의 안경과 1대의 패드(입력된 자막을 각각의 안경에 전송하는 장치)가 한 세트가 되어 여전히 자동이 아닌 사람(자막 오퍼레이터)의 개입이 필수적인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선보인 국립극장의 안경은 배우의 목소리를 안경과 연결된 작은 기기에 인간의 개입이 없이 실시간 번역이 되는 방식(모델명 Epson’s Moverio BT-350 Smart Glasses사용)이기 때문이다.

객석 어디에 앉아있든 배우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곳이라면 오퍼레이터의 도움 없이 자막이 눈앞에 펼쳐진다. 국립극장에 따르면 적어도 97% 이상의 정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100만 명의 잠재관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새로운 안경은 앞으로 공연계에 가장 혁신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 국립극장은 기대하고 있다.

같은 기능을 두고도 프랑스는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영국은 자국민의 장애를 극복해 공연의 향유권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기술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재미있다. 📌